

양육미혼모의 당사자조직 참여 경험과 인식 변화*

손승영**

| 목차 |

- | | |
|------------|--------------------------------|
| 1. 들어가는 글 | 1) '미혼모 되기' 결정 과정 |
| 2. 선행연구 고찰 | 2) 당사자 활동을 통한 연대감
형성과 인식 변화 |
| 3. 연구방법 | |
| 4. 심층면접 결과 | 5. 결론 |

| 초록 |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지만, 양육미혼모되기를 선택하는 여성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미혼모 당사자조직들이 결성되었으나,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들의 활동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 연구에서는 당사자 활동이 미혼모의 태도와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목적으로 15명의 양육미혼모를 심층 면접하였다.

미혼모는 정상가족 규범에 위배되므로 부모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고 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례들도 있다. 단 한명도 아이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자녀 양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엄마가 지고 있었다. 면접참여자들은 당사자 활동에 참여하면서 '준 가족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여러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첫째, 미혼모에 대한 윤리적 잣대로 자신을 괴롭혔던 인식이 변화하여 '위축된 미혼모'로부터의 탈피를 피하게 되었다. 둘째, 아이들이 미혼모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차별과 비난을 줄일 수 있는 사업들에 동참하게 되었다. 셋째, 특강과 사업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형성하고 미혼모의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성의 타자화'에 대해 비판하게

* 이 논문은 2014년도 12월에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및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sysohn@dongduk.ac.kr

되었다. 넷째, 국가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당사자 활동은 양육미혼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자신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주제어 : 양육미혼모, 당사자조직,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자녀양육권, 국가정책

1. 들어가는 글

한국에서는 수십 년 전만 해도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교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에는 미혼 남녀의 성과 사랑이 경험 자체로 중요해짐에 따라 섹슈얼리티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김혜경 외, 2014: 169-170). 친밀성의 구조 변동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행위와 임신이 증가함에 따라 혼외 출생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족 관련 가치관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에도 미혼모에 대해서는 ‘정상가족규범’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게다가 자녀양육 책임을 대부분 여성이 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미혼모가 겪는 고충은 실로 크다(이현주·엄명용, 2013).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팽배해있는 가운데서도, 2005년 이후에는 양육 미혼모되기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추세이다(성정현·김희주, 2016: 39). 이러한 변화는 미혼모가 되지 않기 위해 무조건 자녀를 입양 보내야 한다고 믿었던 이전의 태도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최근 들어서는 자조모임 결성과 협회 활동을 통해 미혼모 당사자들이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고 주체적 행위성을 보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당사자조직에 속한 미혼모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과거 뿔뿔이 흩어져서 개별화 되어있던 시점과는 차별화된다. 이와 같은 양육미혼모들의 괄목할만한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당사자 활동에 대해 여성주의 관점에서 분

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에서는 양육미혼모들이 당사자조직 참여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별 여성이 미혼모 되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알면서도 양육미혼모되기를 선택한 계기와 여성의 주체적 결정이 작용하는 과정은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미혼모 당사자조직에서의 활동 경험이 양육미혼모들의 인식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미혼모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팽배해있는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되기를 선택하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여성의 자율성과 모성권이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본 연구는 기존의 미혼모 연구와는 차별화되며 여성의 입장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미혼모 숫자가 증가해왔는데, 이는 급변하는 성문화의 영향으로 10대 임신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되었다(정경순, 2008a: 186-187). 미혼모 자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요보호 아동 중 미혼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는 1995년의 91,000가구에서 2005년에는 142,000가구로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06).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미혼에게 자녀 유무를 질문하는 문항이 없으므로, 미혼모 가구가 체계적으로 누락된 경향이 있다. 표본조사에서는 미혼 한부모 추정이 가능한데, 2010년의 2% 표본조사에서 미혼모는 5,466가구로 집계되었고(통계청, 2010) 년도별 혼인 외 자녀수에 입양아동수를 합쳐서 계산한 연구에서는 미혼모가구가 35,809로 제시되었다(이미정, 2010; 여성가족부, 2013: 20-22

에서 재인용). 후자의 경우에는 혼인 이전 출산이 포함되므로 미혼모의 과다집계 가능성이 있어서, 양육미혼모 수는 양 조사에서 제시하는 통계 구간인 5,466가구와 35,809가구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하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강한 한국에서는 국가정책이 해외입양위주로 추진되어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윤택림, 2005: 72). 정부는 1954년에 「고아양자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해외입양을 지원하였고 1961년에 「고아입양특례법」을 발표하여 해외 입양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1976년에 「입양특례법」으로 바뀌면서 해외입양 개방으로 재정비됨에 따라, 미혼모와 자녀의 완벽한 단절이 친생부모나 아이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KBS, 2015.5.11.). 이 기간에는 미혼모 자녀는 출생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양친의 친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강은화, 2006: 40). 이 과정에서 미혼모 자녀의 해외입양이 급증하여, 전쟁고아보다 더 많은 수의 아동이 경제 발전이 확립된 1980년대에 해외로 보내졌다(권희정, 2014a: 1). 하지만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는 자녀를 입양시킬 계획이어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여성의 결정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병원 출산이 가능한 외국의 정책과는 차이가 크다. 익명출산이 합법화되어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친생부모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자녀의 알 권리를 중시한 것이다(김상용, 2014). 정책변화로 인해 인적사항 노출을 우려한 한국의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아기를 유기 또는 불법 입양의 대안 모색 가능성이 커졌다. 이전에는 제삼자 신원보증인 2명만으로도 간편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부모 중 한사람이 법원에 출두해 친자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아기는 평생 무적자로 살아야 하므로 유기된 영아들의 출생신고와 입양의 길은 원천 차단되었다(국민일보, 2016, 12. 26). 실제 아기유기가 증가하자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다 아기를 안전하게 버리자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만, 이는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머니투데이, 2016. 5. 9.). 게다가 1차적으로 원가족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고 입양은 차선책임을 명시하여 국제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책임으로 까다롭게 규정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2013년 정부가 서명함¹⁾에 따라, 해외입양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미혼모 자녀 정책에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세계일보, 2016. 8. 2.).

미혼모 연구의 시각이나 관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초기 연구들에서는 10대에 한정지어 가출이나 중퇴와 유사한 일탈행위로 미혼모되기를 평가해 왔다(김만지, 2004: 6). 한편으로는 성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분위기와 10대의 왜곡된 성인식을 문제시하고 실질적 성교육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정경순, 2008b: 230). 미혼모들은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임신에 무방비지만, 새 생명에 대한 애착은 강해 미혼모가 되었다는 해석도 있었다(한영란·양순옥, 1997: 200-201). 다른 편에서는 양육미혼모의 생활환경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왔다(김유경 외, 2006; 홍봉선·남미애, 2011). 최근에는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나이가 많고 자신이 선택한 임신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이복숙·전영주, 2005: 183). 이와 유사하게 미혼모에게 인문치료를 통하여 우울감과 소외감을 줄이고 삶에 대한 긍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최병욱, 2013: 378-379). 비록 최근의 미혼모 연구는 변화된 관점을 보여주지만 여성주의적 인식은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

미혼모의 연령이 높아지고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미혼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 수는 1984년 5.8%에서 2005년 31.7%, 2010년 66.4%로 급속히 증가하였다(이미정, 2013: 43). 10대는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시설에 거주

1) 2013년 당시 복지부 장관이 헤이그협약에 서명하고 2년 안에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16년 12월말 현재도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하거나 원가족과 함께 살기 때문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례를 찾기 힘든 반면, 20대 이상의 양육미혼모에게서는 독립적 가구를 선택하는 사례가 괄목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미혼모에 대해 성인지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늘고 있으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 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여성주의 연구는 미혼모의 선택권을 비롯해서 여성의 행위성과 주체성에 대한 관심으로 담론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주의와 남성 중심의 이중적 성규범이 미혼모 가족을 차별하고 타자화 함으로써, 미혼모들은 주변으로부터 배제나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김혜영, 2013; 이해진, 2014).

1940-1970년대 영국, 캐나다 등 서구에서는 혼인제도 밖에서 출산한 아이를 입양시키는 제도가 성행했는데, 이는 아이스크림을 떠내듯 아이를 친생가족에서 분리시켜 백인 중산층 가정에 대거 입양시킨다는 의미로 ‘베이비 스쿱 시대(Baby Scoop Era)’로 불리기도 했다(캐서린 조이스, 2014: 150). 당시 미혼모는 부도덕한 모성을 지닌 치유되어야 하는 문제 여성으로 여겨졌고 그의 자녀는 구원되어야 할 불행한 아이로 인식되었다.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난 미혼여성의 자녀 출산은 공개할 수 없는 개인 사일 뿐이고 가족의 적법성을 결여한 미완성가족으로 간주되었다(구드, 1982). 하지만 이와 같은 정상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은 변화하여, 1970년대 말부터 서구에서는 자녀를 입양 보낸 미혼모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여 잃어버린 어머니의 권리에 대해 사회문제화하기 시작했다(권희정, 2015: 58). 가족의 다양화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하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제도 밖 모성에 대한 탈모성화나 자녀 고아 만들기의 폭력적 시도가 중단되었고, 국가가 혼외 출산을 수용하여 적극적인 미혼모 지원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녀를 친모와 격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시키는 것을 당연

시 하는 폭력성이 지속되고 있다(권희정, 2014b: 41).

최근의 여성주의적 연구들에서는 미혼모의 임신경험을 일탈로 해석하기 보다는 여성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행위의 맥락과 특성 파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서정애, 2009). 미혼모 연구의 관심 전환은 미혼모 당사자조직의 설립 후 미혼모들의 당당한 의견 표출 및 자기 드러내기 와도 연결되어 있다. 미혼모 조직은 한국인 딸의 미국 입양 과정이 궁금해서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던 리처드 보아스씨의 재정지원에 의해 가능해졌다²⁾. 그는 2007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결성해서 미국에 등록한 후 2008년 한국 사무소의 개설을 도왔다. 이어서 한국 최초의 미혼모 당사자조직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설립을 지원했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 ‘미쓰마마’ 제작을 후원했다(동아일보, 2015. 4. 14.). 2013년에는 당사자조직인 미혼모협회 인트리가 서울에서 조직되었고 대구와 구미지역 미혼모 단체인 대구미혼모가족협회가 설립되었다. 미혼모 당사자조직의 설립은 미혼모 자신들을 당당하게 대중 앞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 서비스를 요구하는 적극성이 생기게끔 변화시켰다(이해진, 2014: 59).

3. 연구방법

심층면접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당사자조직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인트리, 대구미혼모가족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양육미혼모들이 대상이었는데, 당사자조직에 소속된 회원들을 ‘알음알음 방

2) 그는 시설 내에 있던 20대 만삭 여성 12명 모두 아기를 입양 보낼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입양 외에는 선택이 없는 현실을 목격하고는 미혼여성의 자녀양육권 확보를 위한 단체 설립을 지원하게 되었다.

식(snowballing methods)'으로 소개받아 총 15명을 심층면접하였고 그 중 2명은 기관의 대표이다. 연구자는 면접참여자들을 서울과 대구의 사무실, 거주지, 일터 주변의 카페에서 만났고, 조용한 곳을 원할 때에는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참여자 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였다.

〈표 1〉에서는 면접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요약 정리하였는데, 연령별로는 20대 3명, 30대 7명, 40대 5명으로 3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미혼모가 심층면접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당사자 조직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10대가 없기 때문으로, 10대는 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원가족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자녀 수와 관련해서 참여자는 15명 모두 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학력은 고교중퇴 1명과 고졸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 4년제 대졸 6명, 전문대졸 1명, 대학중퇴 2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현재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이다. 이들 15명의 주거 형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2명이며, 1명은 시설에서 만난 미혼모자 3가구가 함께 살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아이와 엄마 둘만 살고 있었다.

〈표 1〉 면접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

면접 참여자	나이	자녀 나이	학력	주거	하는 일
1	30대 후반	6세 아들	대졸	시설에서 만난 3가족이 함께. 월세	간호조무사 수련 과정.
2	30대 초반	3세 딸	고졸	아이랑 둘이 LH 전세 임대	스킨케어, 아로마 강사
3	20대 후반	5세 아들	전문대졸	아이랑 둘이 LH 전세 임대	편의점알바
4	30대 후반	8세 딸	대학중퇴	부모님 댁에서 거주	서비스업
5	30대 초반	10세 아들	고졸	아이랑 둘이 월세	활동가
6	40대 초반	12세 아들	전문대졸	아이랑 둘이 LH 전세 임대	천연비누제작, 강사
7	20대 후반	5개월 아들	대졸	어머니 댁에서 오빠와 함께 거주	방송작가일 중단
8	30대 중반	8세 딸	사이버대 재학	아이랑 둘이 LH 전세 임대	협회 활동
9	30대 초반	3세 딸	고졸	부모님 집 부근 아이랑 둘이 월세	텔레마케터
10	30대 중반	5세 딸	고교 중퇴	아이랑 둘이 LH 전세 임대	상담
11	40대 중반	3세 아들	대졸	부모님 댁에서 며칠 전 분가. LH 전세 임대	잡지 기자 협회 임원
12	20대 후반	1세 아들	대학중퇴	아이랑 둘이 LH 전세 임대	간호조무사 수련 과정
13	40대 초반	6세 아들	사이버대 재학	아이랑 둘이 일반 전세	자영업
14	40대 중반	10세 아들	대졸	아이랑 둘이 LH 전세 임대	당사자조직 대표
15	40대 초반	8세 딸	대졸	아이랑 둘이 LH 전세 임대	당사자조직 대표

4. 심층면접 결과

1) '미혼모 되기' 결정 과정

(1) 가족의 반대와 연락 단절 경험

면접 참여자들 중에는 임신 후 배가 불러올 즈음 가족의 비난이 두려워 집을 떠나거나, 출산 후 처녀가 애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난 경우도 있다. <참여자 1>은 친정에서 쫓겨난 이후 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6년째 가족을 못 만나고 있다. <참여자 12>는 미혼모인 친척이 아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너도 그 꼴 된다.”면서 부모가 출산을 반대해서 어머니와는 간혹 연락하지만, 아버지와는 연락단절 상태이다. <참여자 7>은 임신사실을 안 순간부터 어머니가 여러 차례 애 아빠와 합치라고 해서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엄마만 알고 한집에 사는 오빠도 자신이 미혼모인지 모르며, 시설에서 일하다 보니 위탁모로 남의 애를 키운다고 거짓 말을 한 상태이다. <참여자 2>는 미혼모가 된 후 식구들을 못 만나다가, 반대가 극심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전화했다고 한다. 형제들도 반대했는데 형부가 “너도 자식 있으면서 입양시키려는 게 말이 되냐?”고 언니를 설득해서 형제들을 먼저 만나고 올해 설에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참여자 6>은 집을 나와 아무도 모르게 출산하려 했으나 제왕절개하러니 가족의 동의가 필요해서 언니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때 언니가 애는 직접 키워야 한다고 강력히 얘기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한다. 언니만 아는 상태에서 4년간 숨기다가 할머니 89세 생신 날 아들을 데리고 큰집에 갔는데, 친척들이 보여준 냉담한 태도에 심한 상처를 받았고 다행히 아버지가 애 아빠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잘라서 얘기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한다. <참여자 11>은 평소 이혼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아버지가 딸이 미혼모 된 것에 대해서는 무척 심란해하셨고 미혼인 여동생들은 10대도 아닌 40대 언니가 아이를 낳아왔다

고 한심한 듯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자랑 합치라고 권유하던 친정부모도 남자나 그 부모를 만나고 나서는 기대를 접고 혼자 살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참여자 3>은 친정엄마와 함께 남자 집에 갔는데, 그 부모가 애를 안아주지도 않고 냉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집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혼모가 된 딸을 어머니가 받아들였다고 한다. <참여자 4>는 시어머니랑 화를 내면서 전화를 주고받고는 연이어 친정엄마께 전화했더니 목소리만 듣고도 눈치 채시고 빨리 집으로 오라더니 마음 단단히 먹고 애 키우라고 허락했다고 한다. 그 때 친정엄마는 “고개 들어라, 당당하게 지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이가 5살 쯤 되어서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물었더니 입양 보내라 하면 “네가 반미친 년 같이 돌아다닐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참여자 9>는 결혼식까지 올리고는 남자랑 헤어지겠다고 하니 부모님이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면서 혼내셨지만, 딸이 하도 완강하니 어쩔 수 없이 인정해주고는 내놓고 아기는 예쁜데 딸이 너무 밍다고 얘기할 정도로 양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자 11>은 아이 돌이 되는 달에 백화점 커피숍에서 만난 애 아빠가 애를 안아보고는 그걸로 끝인 데에 부모님이 몹시 화가 나셨고 애를 보고는 자기랑 안 닮았다고 얘기하는 남자에게 본인도 화가 나서 함께 살기 힘들다는 결론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미혼모라는 이유로 비난과 힐책이 가해지고 있었고 정상가족 규범이 미혼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면접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 양육미혼모가 되기까지

면접참여자들 중에는 양가 상견례를 마쳤거나, 동거했거나, 시택에 들어가서 살았거나, 심지어 결혼식을 올린 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혼인신

고를 하지 않았거나 임신 후 또는 아이 출생 후 남자랑 헤어졌기 때문에 미혼모로 분류된다. <참여자 1>은 결혼날짜를 정했으나 궁합이 안 좋다는 남자 엄마 반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고 <참여자 3>은 만삭이 되니까 입양 보내라고 성화인 남자 쪽 식구들 때문에 시댁을 떠나게 되었다. <참여자 4>는 시댁에서 2년간 함께 살다 애를 낳았으나, 시어머니의 거친 성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헤어진 경우이다. <참여자 8>은 여자의 종교 활동을 트집 잡는 남자 엄마와 엄마 말 잘 듣는 남자의 무책임함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 <참여자 2>와 <참여자 11>은 남자의 바람기가 헤어지게 된 직접적 원인이었다. <참여자 12>는 임신 후에야 사귀던 남자가 이혼소송 중인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격까지 안 맞아서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한다.

자녀양육을 결정하기까지 여성들은 지난한 고민의 시간을 거친다. 특히 아이 아빠나 그의 가족이 낙태를 강요할 때 여성들은 힘든 고민에 빠지게 된다. <참여자 2, 5, 6>은 임신을 알린 즉시 남자 측에서 낙태를 원했다. <참여자 2>는 임신 직후 사귀던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 챘는데, 바로 그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했고 출산 후에는 입양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참여자 3>은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몸의 이상을 느꼈고 4개월이 지나 낙태비용의 부담을 느낀 남자가 아이를 낳자고 해서 시댁으로 옮겨갔지만, 배가 불러오니 시댁식구들이 입양 보내라고 요구했다. <참여자 6>은 남자친구가 단호하게 낙태하라고 했지만, 자신은 입양 보내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낙태반대연합' 활동가가 전화로 알려준 시설에 입소해서 출산하게 되었다. 다른 참여자들은 낙태나 입양에 대한 남자 측 강요는 없었지만 남자가 책임을 회피한 경우이다. <참여자 8>은 남자 엄마 반대로 결혼을 못하게 되자 남자는 애를 혼자 키우다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말로는 멋있게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결국 책임진 적은 없다. <참여자 10>이 아이를 홀로 양육하게 된 결정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 애가 너무 예뻐고 아이가 울어대서 마음 아파 보낼 수 없었다는 본인의 결정이 강하게 작용했다. <참여자 2>는 시설 선생님의 권유로 양육을 확정지었고 <참여자 3>과 <참여자 6>은 입양 보낸 부모들이 울고불고 힘 들어하는 것을 목격한데다가, 어린 엄마도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을 보고는 양육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1년간 살았어요. 동거하던 중 합의 하에 애가 생겼는데, 임신 4개월 좀 지나니까 애 아빠가 ‘낙태하자’고 제안했어요. 근데 눈치에 다른 여자 생긴 것 같았어요. 그 여자랑 새벽 3-4시까지 통화하고, 저한테는 애 지우라면서 폭행을 하니 못 견뎌서 시설로 옮겨졌어요. 아기 포기하려고 수술까지 생각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주저했고요. 또 자궁 한 쪽을 지워서 앞으로 애 갖기 힘든 상태라 그냥 낳아 키우기로 결심을 굳혔어요.” <참여자 2>

“저는 21살에 결혼했고 1년 후 이혼했던 적이 있어요. 이혼녀가 되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임신을 했으니, 부모님께도 얘기 않고 밖에 나가 지내다가 아기를 낳아 입양기관에 보내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입양시키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생모가 도망가서 엄마 없이 자란 아픔이 있으신지라, “니 새끼 니가 거두는 게 맞으니 직접 키우라”고 하면서 도와주셨어요.” <참여자 10>

남자의 낙태 요구에 저항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게 된 경우와 달리 남자는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했으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한 사례들도 있다. <참여자 4>는 출산 후 남자의 권유로 분가해서 몇 개월 살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을 보고는 결단을 해서 떠난 경우이다. <참여자 7>은 2년간 사귀던 남자가 뇌수술 후유증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임신 사실을 알았고, 낳고 보니 아이가 너무 예뻐서 입양을 못 보냈다고 한다. <참여자 9>는 연애해서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었고, 남자의 행실로 인해 미워하는 사이가 되다보니 이 남자랑 같이 살면 아이한

테까지 미움이 전이되겠다는 생각에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참여자 11>은 남자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데다가 유부녀와 바람이 나는 등 신뢰할 수가 없어서 애만 데리고 나왔다고 한다. <참여자 12>는 애도 생겼으니 같이 살기를 남자가 원했지만, 거짓말을 많이 해서 믿을 수 없는데다가 사귀다보니 성격이 나빠서 단호히 거절한 경우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남자에게 버림받은 피해자로서의 전통적 미혼모 모습을 보이는 면접참여자도 있지만, 심사숙고한 끝에 홀로 서기를 결심하고 아이를 직접 키워보겠다는 결단력을 발휘한 여성들도 만날 수 있었다. <참여자 7>은 아이를 떠나보내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 같아서 아가씨로 지내고 싶은 욕심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참여자 11>과 <참여자 12>는 신뢰할 수 없는 남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느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낫다는 판단에 미혼모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주위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갈등적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양육미혼모가 되었다. 남자친구나 그의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강행하고 양육을 선택한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성과 행위성이 드러나고 있다.

(3) 홀로 아이 키우기에 대한 평가와 의미부여

한국사회에 팽배한 정상가족이데올로기로 인해 홀로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미혼모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부담이 된다. 혹 남자가 애를 키우면 미혼부로서 책임감 있다고 칭찬받지만, 미혼모에 대해서는 “너, 왜 그랬니?”라는 식으로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곤 한다(<참여자 8>). 미혼모들은 미혼부의 책임 유기로 힘든 형편인데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 실정이다. 미혼모들은 남편 도움 없이 혼자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어렵고(<참여자 1>),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하다보니 신체적으로도 힘들어 한다(<참여자 3>). 본인이 아플 때는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고, 애가 아플 때는 혼자서 돌보느라 힘들 때가 많다.

친지 관계도 단절된 상태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점이 애로점이다(참여자 6). 아이로 인해 자기계발이나 여행에 사용할 시간이 줄어들었고(참여자 11), 아들이 변신 로봇을 만들어달라는 등 힘든 역할을 요구할 때 아빠의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한다(참여자 1).

하지만 면접에 참가한 미혼모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아빠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다. <참여자 9>는 “그 인간 떠올리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다. 좋은 기억도 아니고 기억을 꺼내봤자 나만 아프고 힘들다.”면서 손 사례를 썼다. <참여자 12>는 만나지 않지만, 소식은 듣는데, 아이 아빠가 계속 선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하고 <참여자 1>은 헤어지고 나서 1년 만에 남자는 선보고 결혼해서 잘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참여자 6>은 도망치듯 서울로 온 이후에는 아이 아빠를 만난 적이 없으며,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바뀌었다고 한다. <참여자 7>은 출산 한 달 전에 임신을 알렸는데, 늦게 알려서 믿을 수 없다면서 유전자 검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 검사결과 아들로 판명되니 한 달간 기저귀랑 분유를 조달했으나, 합치지 않겠다고 했더니 만나지 말자고 하고는 연락조차 없다고 한다. <참여자 8>은 출산 직후 남자가 몇 번 다녀가고는 연락이 끊겼다가 작년에 양육비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애 아빠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아빠를 만나더니 딸이 ‘한번 만난 아빠라 칭하면서 좋아하기에, 딸이 원할 때는 전화라도 연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소송 당시에는 아이 아빠가 경제력이 없어서 돈 한 푼 못 받고 합의해주었으나, 이후에는 돈을 벌지만, 양육비를 보내지도 않고 아이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양육비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과거 양육비 월 50만원씩을 청구했으나, 애 아빠가 직장 이사 한 분이 나가서 사업하는 데 같이 하다가 그 이사가 공금횡령을 하는 통에 망한 시점이고 빚에 허덕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와 다시 연결되어 있으니, 돈은 못 받더라도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부탁하며 합의로 끝냈어요. 근데 지금

은 컴 프로그래머로 다시 취직했는데 전화하면 안 받고 연락을 피해요.”(참여
여자 8)

면접참여자들은 아이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돈을 받으면 아이를 데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남자가 폭행하면서 아이 포기각서 쓰라고 했던 경험이 있는 <참여
자 2>에게 남자의 경제적 지원은 아이를 빼앗기는 행위와 동일시되고 있었다. <참여
자 3>은 남자의 누나가 애 보내면 잘 키우겠다고 했던 얘기를 언급하면서 애 달라고 할까봐 양육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참여
자 6>은 언니가 애를 낳지도 말라는 인간한테 치사하게 양육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 양육비를 받을 생각조차 안했다고 한다. <참여
자 9>는 애 낳고 전화가 와서 아이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 다시는 보
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돈 준답시고 종종 아이를 보겠
다고 할 것이 우려되어 양육비를 포기했다. <참여자 12>는 남자 부모가 경
제적 여유가 있지만, 그 어머니가 손주를 바랐기 때문에 양육비 받을 생각
조차 못하고 있다. 면접참여자들은 남자랑 어떤 끈도 연결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벌고 온전히 자신의 아이로만 키우고 싶다는 의사가 강했
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청구는 지난한 작업이므로 미혼모에게 옛 남자를
만나야 하는 것은 다시 상처받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아이와 둘만 살아야 하는 일상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것이 쉽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엄마가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
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는 연구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첫째, 아
기가 생기니까 남의 자식도 예뻐 보여서 아이를 좋아하는 자신을 재발견
하게 되었다고 한다(참여자 7). 둘째, 아이가 생기니까 심적으로 든든하
고 행복해졌다고 한다. 아이 양육이 힘들기도 하지만 자신이 아이에게 의
지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아이와의 유대에 대해 뿌듯해졌다고 한다(참
여자 4, 9).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녀 양육 방식

을 취할 수 있고 또 남편을 위한 가사 서비스를 안 해도 되니 오히려 편한 입장이라고 했다(참여자 5).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신을 포함해서 유난히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어서 엄마들이 독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참여자 10).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예전처럼 놀지도 않거니와, 아이를 먼저 생각하다보니 돈 씀씀이도 바뀌고 가장으로서의 생활태도가 확립되었다고 한다(참여자 2, 9). 이와 유사하게(참여자 11)은 친정식구들이 보기에 아이가 자신을 좋은 쪽으로 이끌고 있다고 했다. (참여자 10)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부모교육을 여러 군데에서 이수하고 있고 말 한 마디나 행동 하나에도 신경 쓸 정도로 아이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지만 면접참여자들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고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기 때문에 ‘양육미혼모 되기’ 선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이들은 홀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모의 위치가 책임감과 홀로서기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당사자 활동을 통한 연대감 형성과 인식 변화

(1) ‘준 가족공동체’ 로서의 당사자조직

미혼모 당사자조직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모여서 마음을 열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입양 홍보회도 있는데, 아이 키우는 엄마들 단체는 없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시점에 미혼모 단체 설립에 주력했다고 한다(참여자 15). 한 미혼모 카페에는 회원이 1,900명 정도이고 그중 70-80%가 양육미혼모이며, 월 회비 5천 원씩 내는 정기회원은 150명 정도 규모이다(참여자 6). 미혼모 당사자조직에서는 먼저 애를 키운 엄마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참여자 1, 7), 단체에 오면 봉사자들이 아이를 봐주니 엄마들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참여자 3). 다른 친구

들과 만나면 남편이나 시부모 얘기에 불편한데, 같은 처지 엄마들이다 보니 눈치 안 봐서 좋다고 한다(참여자 2). 다른 미혼모 거점 기관에 가면 관리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당사자조직이고 대표도 미혼모여서 잘 통하고 마음이 편하다(참여자 5, 13). 조직에서 고민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들도 서로 비교하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낸다(참여자 8). ‘멘토-멘티(mentor-mentee)’ 제도를 통해 아이들은 삼촌과 이모를 만나게 되고, 아이들끼리는 형, 아우, 언니, 동생이 되니 ‘준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자 6)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는 미국 입양아인 29세 삼촌을 만나면 아들이 아빠를 만난 듯 반가와 하고 삼촌이 아빠하면 안되느냐고 물을 정도로 친숙함을 느낀다고 했다. 친정에 가도 눈치가 보이고 친지가 모인 자리에서도 불쑥 튀어나오는 아빠 부재에 대한 평가와 시선을 의식해야 하지만, 당사자조직에서는 그런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 편한 곳이다(참여자 10).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이 모이니 핏줄보다 더 공감대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저희들은 소수자이다 보니 사회에서 편견 있을 때마다 뭉쳐서 대응을 해야 해요. 부모님께도 의지하지 못하는 신세이니까요. 친척집 방문해도 잔소리 하니 재작년부터는 안가요. 예전에는 애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가도 뺏는데, 이제는 애도 눈치가 뵈니까. 대신 협회에서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명절에 모이니 협회에서 만난 가족들이 내 가족이고요. 친정과 같은 곳이지요.”
(참여자 10)

최근에는 엄마들이 당사자조직에 가면 실질적 도움도 많이 받는다. (참여자 9)는 단체에 등록하니 기업에서 후원하는 물품을 받아서 좋다고 했다. 이 외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협회에서 기관과 연계해서 의료비를 해결하기도 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회원들이 의료비, 주거비, 학비 지원 프로그램들에 지원해서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참여자 6). 뿐만 아니라 애 아빠나 그가

족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참여자 8). 또한 한 여성연구소와 함께 강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배운 내용들이 지식으로 쌓이고 도움이 되다보니 당사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다(참여자 11). 이와 같이 당사자조직은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유익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기능하다보니 양육미혼모들에게는 가족처럼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준 가족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회원이 늘면서 개인이익을 위해 단체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증가해서 정서적 교류 위주의 활동을 중시하는 회원과 물질위주로 이익을 챙기는 회원으로 나뉘는 정도로 덜 순수한 회원들이 늘어나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했다(참여자 13).

(2) 회원 활동과 인식 변화

면접참여자 중 처음부터 자신을 미혼모라고 밝힌 경우는 세 명뿐이었다. <참여자 1>은 어차피 주변에서 알게 될 것이고 처음부터 밝히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참여자 8>은 입사하면서 미혼모임을 알린 경우로 처음에는 일손도 빠르고 정보 습득도 빠르다면서 사장이 칭찬했지만,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홀로 애 키우는 개인적 상황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한다. 아이를 발도로프 어린이집과 구세군 어린이집에 보냈던 경험이 있는 <참여자 11>은 두 곳 모두 미혼모 자녀에 대해 편견이 없었고 구세군은 “양육미혼모를 지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여놓을 정도로 차별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친구나 주위에도 사정을 다 오픈하다보니 친구들이 “너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용적이었지만, 아이 눈치가 뻘한데 친정식구들이 툭툭 내뱉는 편견 섞인 말투에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곤 한다. 그래서 애가 조금 더 크면 다시 동남아로 나가 살 계획인데, 그곳에서는 장애인,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나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적어서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미혼모들 중에는 주위 시선이 두려워서 미혼모임을 공개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 동네에서 엄마들끼리 싸우게 되면 “결혼도 안하고 애를 낳은 게” 라는 식으로 편견이 불쑥 나오곤 한다. 자신이 미혼모라고 이웃에게 어렵게 밝혔더니 괜찮으냐고 묻거나, “나한테는 그런 말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라는 식으로 편견을 드러내서 더 이상 공개하기 싫다고 했다(참여자 12). <참여자 9>는 친한 친구들에게 알렸더니 고깝게 생각했다가도 이해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기도 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오픈해서 가십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 <참여자 6>은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엄마가 다른 엄마에게 미혼모라고 얘기했더니 인사도 안받아주고 학교에 소문을 내서 결국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다고 한다. 자신은 아이의 담임이 가족사항을 확인하고는 이혼했느냐고 물어서 그냥 ‘예’라고 답했더니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고 한다. 한 부모의 경우에도 사별은 미화되고 이혼은 비난 받는 식으로 서열이 있듯이, 미혼모는 이혼에 비해서도 더 낮은 평가를 받고 미혼모 중에서도 속아서 미혼모가 된 경우가 가장 순진한 미혼모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한다(참여자 11).

하지만 협회 발족 몇 달 후에 갖게 된 ‘미쓰 맘마미야’ 촬영은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제안서 쓰고 사무실 꾸리고 주위에 못했던 얘기들을 즐겁게 쏟아내면서 회원들이 밝고 당당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조직을 꾸릴 당시만 해도 “왜 낙태 안하나? 왜 입양 안 보내나? 라고만 질문을 해대서” 내 자식 직접 키우고 싶어 하는 엄마에게조차 포기를 종용하던 사회적 분위기였다(참여자 15). 한 면접참여자 는 아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숨기고 있을 때는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한 것도 잘못이고 임신을 숨긴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자책했다고 한다. 하지만 센터에 와서 다른 엄마들을 만나고 외국 미혼모에 대해

서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미혼모의 90% 이상이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깜짝 놀랐고 미혼모 센터에서 봉사하는 20대 미국 입양아들이 미혼 엄마들을 보면 엄지를 치켜 올리면서 “자기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게 힘들더라도 애를 키워서 고맙다”고 하는 데서 힘을 얻기도 한다(참여자 10). 미혼모 대상 상담을 진행하는 <참여자 11>은 출생등록이 안된 상황에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남겨두면 입양이 불가능해서 시설을 전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는 등 엄마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분위기 조성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은 당사자 활동을 통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바꾸게 됨에 따라 당사자 활동의 가장 큰 결실은 ‘위축된 미혼모’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당한 미혼모’를 꿈꾸게 된 점이다.

또한 ‘휴먼라이브러리(한국미혼모가족협회, 2014)’ 프로젝트를 통해 책의 한 챍터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참여자 8>은 미혼모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가 나이 들어서도 미혼모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게 뻔해서라고 했다. 당사자조직 회원 중에서는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고 라디오 인터뷰도 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방송도 편파적이어서 촬영은 요란하게 했지만 미혼모가 하는 일은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힘들게 사는 모습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참여자 10). 이들의 텔레비전 출연이나 대중 강연과 같은 적극적 노력과 더불어 미혼모들의 태도 변화가 일고 있어서 최근에는 미혼모 자녀라고 아이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한 단체 대표는 최근 들어서 미혼모 상담의 흐름이 달라졌다고 한다. 4·5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피해자로서 자신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남자가 결혼하자고 해도 여자 측에서 호적이 깨끗한 게 낫다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참여자 14). 이처럼 미혼모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미혼모나

자녀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당한 미혼모'를 향해 여성의 주체성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국가 정책에 대해 요구하기

양육미혼모들은 당사자 활동경험을 통해 가장 필요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면접참여자들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아이를 데리고 살 곳이 없을 때라고 했다 <참여자 6, 9, 10, 11>. 생활이 어려워져 전세 보증금도 없고 대출 받기도 힘들어서 주거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온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것이 주거시설이에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애란원, 중간의 집(1년), 영남 모자원(3년), 그린빌(2년)등 시에서 받은 시설혜택이 커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설에서 나와야 해서 주택공사에 신청했는데 그곳은 식구 많은 사람들 우선이었어요. 막 막하더라고요. 시골 할머니 집으로 가야 하나보다 했는데, 마침 전세 임대가 된 거예요. 아기 어릴 때는 한 집에 5가구가 살 정도로 좁은데서 생활했지만 그래도 시설이 있어서 아이를 제가 혼자서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현행 주거관련 정책에는 복지사각지대가 많다. 흔히 미혼모를 젊고 어린 여성으로 생각하지만, 양육미혼모 중에는 나이든 여성들도 꽤 있다. 특히 이혼 후 다른 남자의 애를 낳은 경우는 미혼모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자 10>과 <참여자 11>은 이혼 경력이 있는 미혼모들은 왜 자신들이 미혼모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며 헌법 소헌 내자고 상의 중이라고 한다. 미혼 임신부에게는 출산비용 지원금이 있지만, 한부모 지원에는 출산비용 지원금이 없고, 아이 딸린 이혼녀는 모자복지시설에 갈 수 있는데 갓 태어난 아이는 연령대가 맞지 않아 한부모 시설에도 갈 수 없다. <참여자 10>은 애를 입양 보내기로 했다가 시설에서 다시 찾아온 경우로 거

처를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자 동네 주민들이 시청에 계속 민원을 넣어서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었다. 당시 계약금 350만원을 주변에서 도와줬고, 무엇보다 아이가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18년간 살 수 있는 집이 생겨 안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 11>은 이혼 경력자에다가 나이 많고 해외 머물다 온 경험 때문에 미혼모 인정이 안 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로 인정되는 데도 1년 반이 걸렸다고 한다. 심층면접 실시 직전에 LH 전세 임대로 옮기게 되었는데, 구청에 여러 번 가서 아이가 아프고, 애 데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며 자신의 힘든 처지를 하소연 하고서야 겨우 승인이 떨어졌다고 한다. 함께 사는 부모가 주택소유자인 경우에는 먼저 세대 분리하여 수급자 자격을 획득한 다음, 임대주택을 신청하라는 데 따로 살 곳을 마련할 처지가 못 되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참여자 7>). 세대 분리가 시급한 데도 “복지사들이 움직여서 생활형편을 살피려는 노력은 않고 서류로만 판단하니, 미혼모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가 없다”는 지적이었다(<참여자 8>).

둘째, 재정지원 관련 불만이 많았는데, 미혼모를 위한 국가 지원은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의 자립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참여자 13, 16>). 국가 지원으로 기술교육을 받아도 사회 나가면 배운 내용과 거리가 먼데다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배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기회를 찾기 힘들다. 게다가 현행 수급 제도는 양육미혼모의 수입이 월 136만원 이하여야 한부모 가정 유지 자격이 되어 학비지원, 방과 후 교육, 핸드폰 할인 등 부수적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젊은 엄마들로 하여금 발전을 못하게끔 발목 잡는 제도로 여성들이 돈을 벌고 모아서 노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참여자 6>). 한 면접참여자(11)는 예전 일할 때보다 적은 액수를 벌지만 아기 돌볼 시간이 생긴 것이 장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가 커도 이 정도 수입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결국 미혼모는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 아니냐고 반문했다(<참여자 11>). 이들 미혼모가

정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직접 키운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하고 입양가정에 비해서도 지원을 적게 받는다. 현재 한부모 가정은 수급유지 경우에 만 12세까지 수당 10만원씩 지급받는 데, 입양가정은 14세까지 부모소득 관계 없이 15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은 니 새끼 니가 키우는 데 뭘 바라느냐는 논리이고, 입양가정은 다른 사람이 키워주니까 더 쥐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라는 해석이다. 정부에서는 “양육미혼모를 돕거나 홍보하면 미혼모를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참여자 8).

“한 달 기초생활 수급비 80만원을 받아서 집세 13만원, 어린이집 비용 가면 한 달 20만원, 핸드폰 비용을 내고 나면 생활이 안 될 정도예요. 매달 빚만 쌓이지요. 저는 특강이다 텔레비전 출연, 라디오 인터뷰 등 부수입으로 간간히 살아가고 있고요. 주변에 보면 신용불량자 많아요. 개인통장이랑 본인 명의 핸드폰 없으면 저금리 대출이 안 되니까 국가지원 사업이 있어도 쓸 수 없고요. ‘희망 키움’ 통장 수급 자격도 안 되고요.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싶은데 그 지원금도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해당되니, 나이 든 미혼모는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꿈도 갖기 어려워요(참여자 10).”

한 단체에서는 교육비 지원방식을 미혼모의 자발적 선택과 자립을 가능하게끔 변경했더니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33명을 선발해서 각자 원하는 직업군을 고르게 한 다음 아이 돌보미 비용을 포함해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했더니 그 돈을 홈패션 등 기술에 투자한 사람들도 있지만, 공무원 시험에 투자해서 교육, 행정, 관세 등 2-3개를 한꺼번에 붙은 회원들이 생겨났다(참여자 15). 다른 센터에서는 피부 미용이나 바리스타에 치중하는 데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이 안 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므로 자녀양육이 힘들어서 지원방식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회원이 공무원이 되니 다른 엄마들에게 멘토가 되어서 어떤 과가 정시 출퇴근 이어서 애 키우기에 좋다는 등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셋째, 양육미혼모들에게는 아이 돌봄을 비롯해서 여타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절실하다. 월수입이 136만 원 이상이어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이 돌보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참여자 13>은 저녁에 스터디그룹에 참여하다보니, 돌봄 비용이 낮아는 시간 당 6,000원이고 밤 10시 이후에는 9,000원씩으로 매월 50만 원 이상 소요되어 부담이 크다. 미혼모들 중에는 우울증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가 있듯이 미혼모 생활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을 집밖으로 끌어내서 협회 활동에도 참여시키고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참여자 11>. 또한 조직의 임원들에게 관리자 교육을 받게 해서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참여자 8>. 미혼모 당사자조직은 엄마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체로 변모하고 있지만, 회원이 많아지다 보니 운영비 마련이 어렵고 회원관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참여자 14, 15>.

5. 결론

심층면접에 참여한 양육미혼모들은 모두 20대 이상이고 30·40대가 80%를 차지할 정도로 연령이 높은 편이다. 흔히 미혼모는 10대에 사고를 쳐서 애를 낳은 철부지로 여기지만, 면접참여자 중 10대 출산 사례는 없었다. 이들은 낙태를 하거나 입양 보낼 고민도 했지만, 직접 아기를 키우기로 최종 선택한 경우들이다. 자녀양육을 확정짓기까지는 시설에서 만난 선생님이나 산모들, 친정식구의 권유가 있기도 했다. 여성들은 양육미혼모가 되기까지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이 강하게 작용했으며, 불행한 결혼을 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합친다면 아이에게 미움이 전이될 수 있

다는 판단에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였다. 면접 조사를 진행하면서 미혼모와 정상가족의 경계가 매우 애매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면접참여자 중에는 양가 상견례를 마치거나, 시댁에서 몇 년간 살거나, 둘만 동거하거나, 심지어 결혼식을 치른 경우도 있었다. 혼전 임신이 혼수로 인정되어 과거 비정상성으로 평가되던 그 인식이 무화되거나 약화된 이 시점에도 정상가족규범에 위배되는 미혼모는 혼인으로 봉합되지 못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적 시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면접참여자들은 홀로 아이를 책임지는 가장역할이 힘들지만,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있다. 아이로 인해 엄마로서 책임감이 강화되었고 아이의 정서적인 기능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나 낙인을 참고 견디며, 아이의 미래와 연계해서 좋은 엄마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고민이 컸다. 하지만 이들 중 단 한명도 아이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들 여성들은 양육비를 받으면 아이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아이아빠들 중에는 함께 살면 경제적 책임을 지겠지만, 여자가 혼자 키울 결심이면 엄마 책임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남자나 남자 가족들은 아이를 뺏길지 모른다는 미혼모들의 불안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양육비청구 소송을 했던 참여자는 1명뿐이었는데, 애 아빠의 사정이 나빠서 청구하지 못한 채 합의해줬으나 형편이 나아진 후에도 양육비를 줄 생각조차 안한다고 했다. 이로써 한국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미혼모 차별기제로는 강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부계혈통주의 기능은 미혼모 자녀에게는 전혀 작동되지 않음을 아빠들의 책임회피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은 당사자조직에 참여하면서 회원들과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터놓고 얘기하고 쉽사리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자녀들끼리는 형·아우, 언니·동생으로 지내고 청년들은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해서 삼촌과 이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명절에도 함께 모이는 등 친인척으로서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준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미혼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면접참여자들은 여러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혼모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미혼모 됨에 대해 한국사회의 윤리적 잣대 때문에 자신을 괴롭혔던 인식이 변화하여 '위축된 미혼모'에서 '당당한 미혼모'로 변모를 꾀하게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이유로 미혼모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한부모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혼모의 행위성을 증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비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아이들이 미혼모 자녀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으로 자신의 삶을 영화로 재현하고,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미혼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야기책의 한 챕터가 되어서 공개하는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세상의 차별과 맞서고 있다. 셋째, 자신의 얘기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성인지적 관점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미혼부에 대한 편견은 없지만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젠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미혼모 사이에서도 서열이 존재하는데, 그 기준은 사회가 정한 여성의 정조관념에 기초함을 깨닫고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성을 타자화시키고 여성의 삶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서열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은 여성학 강좌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미혼모가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무기력하게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여성 지위와 그 결정권 없음에 대해 비판하였다. 양육미혼모들은 당사자 활동을 통해 자의식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행위성을 강화하고 주체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차별에 대응하는 공동 기제를 발달시켜온 것이다. 즉, 당사자 활동은 양육미혼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찰하게끔 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계기

로 작용하고 있다.

단체에서 법 지식을 익히고 다른 나라 사례들을 배우면서 미혼모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국가 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입양가족에 비해 양육미혼모 지원이 적은데, 이는 아직도 미혼모를 수치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미혼모 정책은 늘어나고 있지만, 미혼모 중에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이 안 되는 ‘하우스 푸어’도 있고 이혼 경험 때문에 미혼모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미혼모의 자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월수입 1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현재의 방식은 미혼모의 자립의지를 꺾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미혼모 정책에 있어서도 다양한 한부모 상담지원을 연계하고 한부모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미혼모 중에는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많고 10대의 경우에는 당사자조직에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회원 미혼모에게 다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아웃리치 서비스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 최근에 정부가 양육비 이행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육비 집행기구로서의 국가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양육미혼모들이 떳떳하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양육비를 챙겨주고 여성의 자립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조직들이 생기면서 미혼모의 인식전환이나 생활 지원 등을 위한 다각도의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당사자조직 회원들은 자신의 미혼모 됨에 대해 인식을 재구성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의 차별에 맞서 저항함으로써 자녀들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Ⅰ 참고문헌 Ⅰ

- 강은화. 2006.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2권 2호, 39-59쪽.
- 구드, 윌리엄. 1982. 『家族과 社會』. 최흥기 역. 삼성문화문고.
- 권희정. 2014a. 역사문제연구소 주최 「정상성에의 강박: 한국 근현대 가족의 역사」 자료집 발표문(2014. 10. 25.).
- 권희정. 2014b.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의 탈모성화 역사”. 『구술사연구』. 제5권 2호, 37-80쪽.
- 권희정. 2015.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연구』. 제5권 1호, 51-98쪽.
- 김만지. 2004.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2호, 5-25쪽.
- 김상용. 2014. “출생기록의 차단과 비혼모 부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비혼모와 그 자녀의 삶,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한다」 자료집 발표문(2014. 11. 7.).
- 김유경·조애지·노충래. 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경 외. 2014.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 김혜영. 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6권 1호, 7-41쪽.
-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통계연보』.
- 서정애. 2009. “십대 미혼모의 임신경험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1호, 281-308쪽.
- 성정현·김희주. 2016.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제28권 1호, 33-58쪽.
- 여성가족부. 2013.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윤택림. 2005. “입양의 문화정치학: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제언”. 『정신문화연구』. 제 28권 1호, 71-94쪽.
- 이미정. 2010.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소 주최 「제60차 여성정책 포럼: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방안」 자료집 발표문. (2010. 2. 24.)
- 이미정. 2013. “미혼모의 양육권리와 양육여건”. 『미혼모 삶의 쟁점들: 가족주의, 양

64 양육미혼모의 당사자조직 참여 경험과 인식 변화

- 육여건, 법제도』.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33-45쪽.
- 이복숙·전영주. 2005. “미혼모 생애사 연구”. 『여성연구논집』. 제16집, 155-186쪽.
- 이해진. 2014. “양육미혼모의 삶의 조건과 모성권”. 『젠더연구』. 제19호, 59-79쪽.
- 이현주·엄명용. 2013. “미혼 양육모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40호, 157-187쪽.
- 정경순. 2008a.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경험”. 『아동간호학회지』. 제 12권 2호, 186-194쪽.
- 정경순. 2008b. “미혼모의 성인식”. 『기본간호학회지』. 제15권 2호, 229-239쪽.
- 최병욱. 2013. “인문치료를 통한 양육미혼모의 삶의 긍정성 향상”. 『인문과학연구논총』.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34권 1호, 365-402쪽.
- 캐서린 조이스. 2014. 『구원과 밀매』, 뿌리의 집.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2014. 『2014 휴먼라이브러리: 우리들의 아주 특별한 선택』.
- 한영란·양순옥. 1997.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11권 2호, 194-208쪽.
- 홍봉선·남미애. 2011.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방안”. 『청소년학연구』. 제18권 9호, 19-52쪽.

〈신문기사·방송〉

- “한국 미혼모 자립도운 미국 안과의사”. 〈동아일보〉. 2015. 4. 14.
- “베이비박스 사라지게 해주세요”. 〈머니투데이〉. 2016. 5. 9.
- “해외입양이 최선?” 〈KBS 뉴스〉 2015. 5. 11.
- “입양 한인 권리 강화한다더니.. 뒷방 처박힌 헤이그협약”. 〈세계일보〉 2016. 8. 2.
- “버려진 것도 서러운데 법이 입양길도 막는다.” 〈국민일보〉. 2016, 12, 26.

Abstract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al Activities and Perception Change of Unwed Single Mothers

Sohn, Seong Young

(Professor in Gender Studies, Dongduk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organizational activities influence the attitudes and action capabilities of unwed mothers.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of 15 unwed mothers raising their own children. The action of bearing child by unmarried woman is still seen to pose severe challenges against normative family ideology of Korea. None of them receive any financial support from father of the child. Participation in the group activities has provided with them a sense of belonging in a 'semi-familial community.' First, change in their perceptions towards criticisms directed against themselves on moral grounds transformed them from 'intimidated mom' to 'proud mom.' Second, they promote future-oriented programs so that their children will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just because they live with an unwed mother. Third, they formed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through special lectures and programs, and started to criticize the perceived lack of options for single moms but to give up their children for adoption. Fourth, they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 effective welfare programs for unwed mothers raising own child. The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al activities enabled unwed mothers to reflect on their life in more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and enhanced their independent capabilities.

66 양육미혼모의 당사자조직 참여 경험과 인식 변화

Key words : unwed single mother, organizational activities, normal family ideology, child custody, government policy

- ┃ 투 고 일 : 2017년 1월 4일
- ┃ 심 사 일 : 2017년 2월 5일
- ┃ 게재확정일 : 2017년 2월 5일